

<별첨>

외신 동향

□ Too reliant on the few (Economist 14.09.20)

- 조세정책 측면에서 볼 때 넓은 세원 확보가 효율적인데 최근 많은 국가들에서 우려될 만큼의 세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높은 소득세율은 기업가정신을 방해하고 조세저항을 높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 넓은 세원 확보가 바람직한 조세 정책방향의 기본 원칙
 -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주요 세수인 소득세가 상위 소수에게 집중되는 형태
 - * 영국에서 지난 5년 간 고용이 130만 명 증가하는 동안 납세자 수는 오히려 220만 명 감소
 - * 영국은 상위 소득계층 1%가 전체 소득세의 28%를 차지('79년 11%)하고 미국은 46%('79년 18%)를 차지

영국, 세수 증대 없는 경기 회복 (The tax-free recovery)



• 영국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7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인고용률이 73%로 '74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등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

• **소비회복, 부동산활황**으로 VAT, 인지세 수입 등은 증가했지만 정부수입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세수가 부진**

• 자영업,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일자리 창출은 **세금공제 및 정부의 수당지급**을 늘리면서 **재정에 부정적인 역 재정 장애** 현상 발생

- '**역 재정 장애**' (reverse fiscal drag): 정부의 빚과 조세증가로 인해 민간기업의 지출과 투자가 줄어들면서 고용시장 회복을 끌어내리는 **재정 장애(fiscal drag)**가 아니라, 그 반대로 고용 시장 회복이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상

- **법인세** 또한 소수에 집중되는 형태

* 영국은 830개의 기업이 법인세수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은 5개 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81%를 차지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체 수는 3분의 1에 그침

미국, 자국 기업의 해외이전 막기 (Inverse logic)

-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은 **자국기업의 해외이전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
- 금년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기업과 합병**을 발표하면서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데 이러한 행위의 주요 동기는 **세금 납부액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 * 미국은 법인세율이 39%로 여타 선진국대비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외국 법인이 되면 해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 납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 절감
예) 미국의 Walgreens사가 스위스의 Alliance Boots와 합병 발표시 Bardays는 이를 통해 Walgreens사가 7억 83백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
- 미국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개혁**의 일환으로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등 해외이전 동기를 낮추려는 **anti-inversion 방안** 등을 논의 중

○ 이러한 세원의 감소는 확대되는 불평등현상의 자연스러운 결과

- 전체소득 중 **최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고 **소득세율은 누진적**이기 때문에 **소수의 상위소득자가 전체 세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
- **저소득층**을 위한 **면세 정책 신설** 등도 **납세자 수를 감소**시키고 소수에 집중케 한 배경
예) 미국의 EITC(근로장려세) 등

- 그러나 이러한 세원(소득세, 법인세)의 감소는 정부의 **조세정책 실패**를 반영하는 모습

- ① **적정수준의 빈곤퇴치 이상의 면세 또는 감세정책** 확산으로 **불필요한 공제** 양산
- ② **법인세 상 조세규칙이 21세기의 경제 현실반영에 실패**
예) 애매한 조세조약 등으로 기업 조세 회피 가능

⇒ **세원 감소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협적인 요소**

-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금공제 제도를 개선 (better simpler)**
- 기업 **회계처리 방식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 필요 (**better together**)

○ 최근 OECD의 국제조세 개혁 논의 동향은

- ① 기업 내 거래 적용 가격을 절세에 도움이 되도록 임의 조정하는 **이전가격 설정(transfer pricing)** 규제
- ② **국제적 조세회피(treaty shopping)** 관행 척결
- ③ 기업이 절세를 위해 다양한 세제를 교묘히 악용하는 **혼성 불일치(hybrid mismatches)** 효과 차단

- 이러한 초안은 지난 9월 20-21일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동에 제출 되어 보완을 거친 후 내년 **다자 협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목표**